

흑백 담백함에 담은 남도 사람들과 풍경

양림동 이강하미술관 '이강하전'...2월 28일까지 드로잉 40여점
26일 음악회 '예술가의 초상'...작곡가 이승규 '자음상' 등 들려줘

고(故) 이강하(1953-2008) 화백은 강한 단청무늬와 오방색 등 화려한 색감과 치밀한 묘사가 압도하는 대작들로 각인돼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이강하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 '이강하가 사랑한 남도, 그리고 사람들'전에서 만나는 작품은 또 다른 감상의 즐거움을 준다.

이강하는 "대생은 단순한 그림의 기초가 아니라 그림의 시작이자 끝"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오랜 시간 대생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얻어지는 대상과의 친숙함이야말로 리얼리티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생각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드로잉 작품 40여점을 만나는 이번 전시에서는 흑과 백의 담백함과 함께 그가 애정을 담아 묘사한 인물과 풍경들을

만날 수 있다. 그의 회화에 담긴 대생은 아이를 얻고 가는 엄마의 뒷모습, 잠시 휴식을 취하는 무용수, 발 일을 하는 사람들, 사색에 빠진 여인 등 다채롭다. 딸 아이의 모습도 그가 자주 그린 소재 중 하나다.

전시 기간중인 오는 26일(오후 7시30분) 특별한 음악회 '예술가의 초상'이 열려 눈길을 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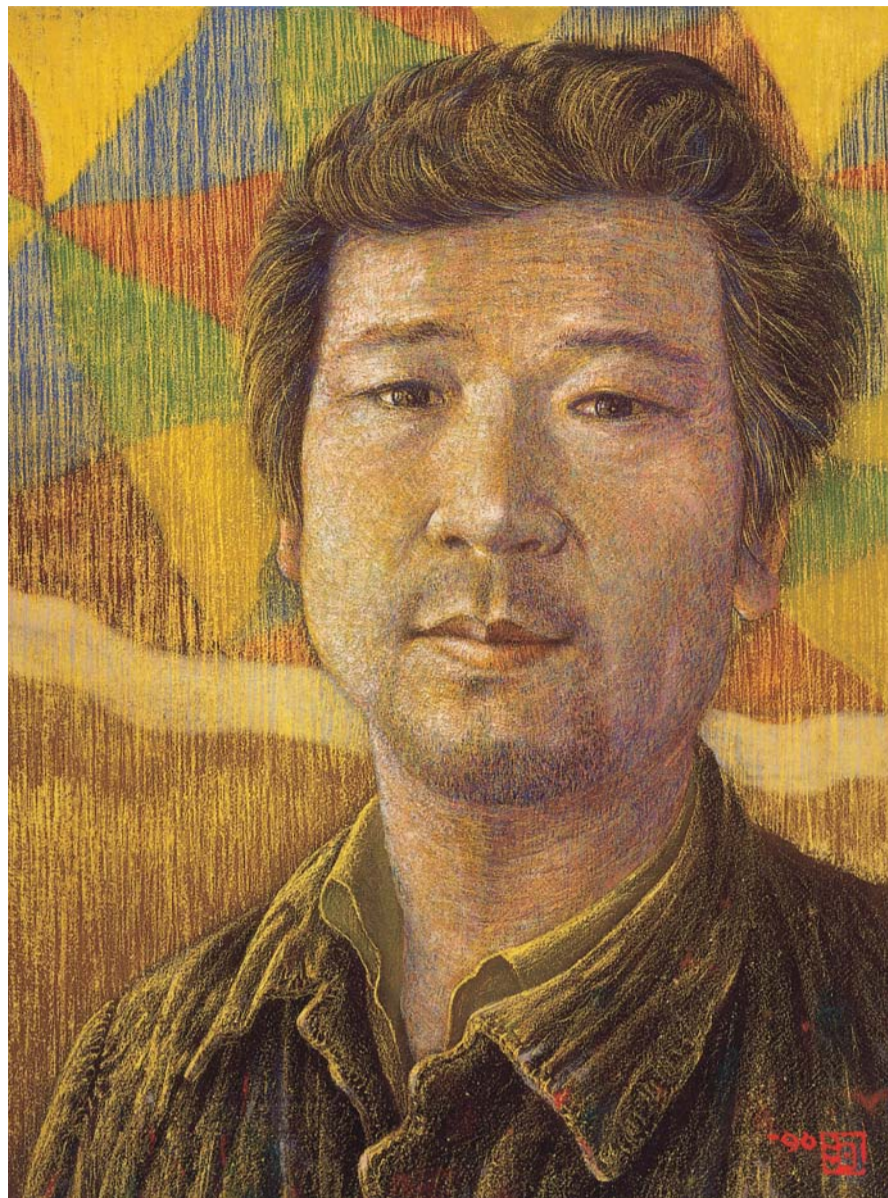
이강하미술관은 30여년 간 양림동에 살며 작업을 했던 이 작가의 유족이 작품과 화구 등 아카이브 자료를 기증해 올 2월 문을 열었다. 미술관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1990년 작품인 작가의 '자화상(自畫像)'이다. '광주'라는 음반을 낸 이승규(광주작곡마당 대표)씨는 이 그림에서 영감을 얻어 작곡가로서의 자신을 들여다봤고 피아노곡 '자음상(自音像)'을 작곡했다. 화가가 그림으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작곡가는 음악으로 예술가의 초상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하는 마음에서였다.

이번 음악회는 이강하의 자화상 앞에서 처음으로 '자음상'이 연주되는 자리로 이승규 작곡가와 함께 조인호(광주비엔날레 전문위원) 미술평론가, 이정덕 이강하미술관장 등이 자리해 예술가의 영감의 원천은 어디서 오는지, 예술가로서 고난과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예술가의 삶과 작품 세계는 어떤 연관점이 있는 지 등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다.

'영감', '고난', '삶'을 주제로 열리는 이



작곡가 이승규



내년 2월까지 이강하미술관에서 '이강하가 사랑한 남도, 그리고 사람들'전이 열린다. 이강하 작 '자화상(自畫像)'

번 음악회에서는 이승규가 작곡한 가곡 '눈물'(김현승 시), '별비'(이수복 시) '양림동의 별'(한희원 시) 등을 테너 장호영이 김지현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들려주며 바이올린 소나타 '정추, 1923-2013'을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산이 연주한다.

피아노 곡은 '과거', '말더듬', '가족', '치유' 등 4곡으로 구성된 '자음상'으로 이승규씨가 직접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다. 공연 후에는 '이강하의 길' 도록을 관객들에게 증정한다.

전시는 내년 2월28일까지 이어진다. 문의 062-674-8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엄마 등에 업혀'

옷칠 수저세트서 쿠션·에코백까지...문화전당 신규 문화상품 40여점 선보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이하 ACC)이 실용성을 더한 신규 문화상품 40여종을 선보인다.

신규 출시된 문화상품은 '문화도시 광주'와 'ACC의 건축물' 등을 모티브로 ACC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반영했다. 지역 장인, 일러스트레이터, 디자이너들이 제작에 참여했으며 방문객들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소품, 주얼리, 공예품 등 실용성을 강화했다.

대표 상품은 광주시 공예명장인 최석현 명장(2015년 광주시 나전칠기 공예명장 선정), 한경희 명장(2014년 광주시 공예명장 선정)과 협업한 옷칠수저 세트와 지승공예 액세서리이다. 또 지난 9월 발표한 'ACC문화상품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인 '함께'를 활용한 쿠션과 에코백도 있다. 또한 ACC는 이번에 광주시 지도 모양을 활용한 키홀더, 오프너, 목걸이 등 금속 제품 개발을 처음 시도했다.

신규 상품 40여종은 ACC 컬처샵(문화상품점) 및 ACC 문화창조원 로비 팝업스토어에서 만날 수 있다. 연말연시를 맞아 기존 상품의 특별 할인행사도 진행하고 있다.

향후 ACC는 지역 및 아시아의 장인을 비롯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문화상품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062-601-40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디자인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에코백.

'광주 가객' 정용주 10년만에 단독 공연

30일 남구문화예술회관...7080 노래 등 선물

노래 인생 40년을 맞은 '광주의 가객(歌客)' 정용주(60)가 10년 만에 단독 공연을 연다.

김성주 가객 정용주 콘서트 '나는 나답게'가 오는 30일 오후 5시 광주 남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8번째 열리는 그의 단독 콘서트는 그가 낸 3장의 앨범 수록곡과 7080 노래 선물을 가지고 관객을 맞이한다.

정용주의 40년 노래 인생 첫 페이지는 1978년 광주MBC의 간판 라디오 프로그램 '별이 빛나는 밤에(별밤)'에 출연하면서 시작한다.

1970-1980년대 금남로와 망월동을 주 무대로 활동했던 그는 지난 2002년 12곡이 담긴 '좁은 길 그 위에서'로 자신의 이름이 걸린 첫 음반을 냈다. 산을 좋아했던 그는 그로부터 4년 뒤 포크그룹 '소리모아'의 박문욱이 작사·작곡한 '지리산'을 타이틀로 내건 2집 '산 산 산'을 선보였다.

광주 통기타 1세대 음악인인 정용주는 25년 전 광주 충장로 옛 가든백화점 인근에 마련한 '소리마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통기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조선대 거리, 사직공원, 예술의 거리를 거쳐 그는 지난 2014년부터 동구 동명동(농장다리 옆)에서 '산울림'이라는 카페를 열어 틈틈이 라이브 무대를 열고 있다.

이번 무대는 정용주의 대표곡 '세월이 갈수록'을 부르며 문을 연다. 기존 노래 외에도 임흥규 전 광주시향 부지휘자가



정용주

만든 '입으로 전해온 노래'와 한중연의 '인생길' 등이 처음으로 공개된다. 공연 중간에는 가수 김소연이 '눈이 내리네'와 '당신은 알고 있나요'를 부르며 분위기를 돋운다.

'윤화매 작가'로 알려진 다음 김창덕이 윤화매 그림자 퍼포먼스로 불거리를 더하고 '삼포로 가는 길'과 '나는 행복한 사람'을 관객과 함께 부르는 자리를 마련한다.

양주호씨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진, 대금 연주자 장근모, 에코밴드 등이 출연한다. 전석 3만원. 문의 인터넷 카페(cafe.daum.net/jungyongjoo), 010-3617-4716.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목포시립합창단 송년음악회 '아듀 2018'

27일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시립합창단이 오는 27일 오후 7시 목포문화예술회관에서 송년음악회 '아듀 2018'을 연다.

70번째 정기연주회를 여는 목포시립합창단은 1985년 창단된 뒤 매해 정기연주회를 열고 200회 넘는 음악회에 출연하고 있다.

연주회는 한국 가곡과 성가 등으로 다채롭게 꾸며진다. 먼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문을 열고 '남촌', '눈', '청산에 살리라' 등 가곡을 무대에 올린다. 모차르트의 '아베 베를 코르푸스'와 베르디의 '예루살렘', 마스카니의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날리고' 등 유명 작곡가의 음악들로 무대를 채운다.

이번 무대에는 초당대 음악과 외래교수와 아르스 노바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현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았다. 또 바리톤 오동국, 소프라노 송정



지휘 김종현 바리톤 오동국

아, 테너 조규성이 특별 출연해 각각 카르딜로의 '무정한 마음', 로시니의 '교양이 이중창' 등을 부르며 분위기를 돋운다. 이번 무대에는 피아니스트 이명희와 목포시향 단원인 오윤주·윤혜경(바이올린), 김주영(비올라), 양윤선(첼로), 권새롬(콘트라베이스)이 협연한다.

마지막으로 에반스의 성가곡 '축복'을 부르며 한 해를 보내는 무대를 마무리한다. 전석 5000원(학생 3000원). 예매 티켓링크(ticketlink.co.kr). 문의 010-5648-6547. /백희준 기자 bhj@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